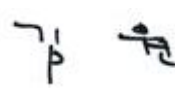


강 의 계 획 서

프로그램명	인문학으로 만나는 유럽의 예술			강사명	김 원
대상	성인			인원	50명
강의일시	2022. 9. 13.(화) ~ 10. 11.(화) 10:00~12:00, 총 5회				
강의목표	유럽 예술문화에 대한 교양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여건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				
교수방법	강의 형식				
필요 기자재	빔 프로젝터, 노트북, 포인터				
교재비(재료비)	없음				
차시	일자 (요일)	주제	세부 강의내용	준비물	강사
1	9.13. (화)	예술작품으로 보는 유럽의 탄생 신화와 바람둥이 제우스의 진실	역사 속 유럽 문명의 시작과 발전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?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왜 바람둥이인가? 그림과 조각을 통해 역사와 신화를 같이 해석해 본다.		김 원
2	9.20. (화)	르네상스, 새로운 세상을 열다 - 르네상스 3대 거장	르네상스는 신 중심의 두터운 중세의 벽을 깨고 인간 중심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, 예술의 혁신 운동이다. 이 중심에는 많은 거장들이 존재한다.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, 미켈란젤로, 라파엘로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본다.		김 원
3	9.27. (화)	바로크 미술의 두 거장, 카라바조와 베르니니	르네상스가 끝나고 방황하던 유럽의 미술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두 천재 예술가가 등장한다.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여는 이들로 회화에서는 카라바조, 조각에서는 베르니니가 그들이다.		김 원
4	10.4. (화)	모던을 향한 발칙한 도발, 마네의 <올랭피아>	프랑스 혁명 이후 <살롱전>으로 대표되는 아카데미 미술이 대세이던 미술계에 엄청난 비난을 받는 그림이 등장한다. 그러나 이 그림은 후에 현대 미술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인상파를 등장케 하는 계기가 된다. 마네의 작품과 그의 미를 살펴본다.		김 원
5	10.11. (화)	불꽃같은 열망과 고독, 빈센트 반 고흐	인정받지 못한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통해 그의 불꽃같은 열정과 고독이 담긴 작품세계를 여행한다.		김 원
2022년 7월 29일					
작성자 : 김 원 					
부산도서관장 귀하					